

엄숙하고 소박한 결혼문화

6 손봉호 (대표주간)

한 사람의 일생에서 결혼식만큼 중요한 의식은 없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그와 관계된 의식도 당사자에게 무의미하다. 돌잔치나 장례식이 아무리盛大하고 뜻있게 치러졌다 해도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그와 관계된 행사에는 당시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고 멋진 결혼행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일생 회고하면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결혼식, 자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결혼식, 친구와 친지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결혼행사, 교회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행사를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저 적당히 치르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한국의 결혼문화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고쳐야 한다. 하나는 결혼식을 그저 통과의례의 하나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식은 하나의 통과의례다. 그러나 취임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성격의 통과의례는 아니다. 졸업식을 하지 않아도 하여 졸업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임식이 없었다 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결혼이라 할 수가 없다.

결혼의식의 핵심은 서약이다. 신랑과 신부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돌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서로에게 신실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약은 단순히 하나의 이례적인 행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이나 사업상의 계약과 같이 실제적인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한다. 부부는 피로 연결된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성인의 서약으로 맺어지는 연약의 관계다.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혼인서약으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다. 결혼식을 올리고 하객을 초청하는 것은 그 서약의 증인이 되어 약속수행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압력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엄숙하게 치러야 하고 결혼서약은 신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 고쳐야 할 폐습은 결혼잔치를 돈 잔치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신성한 것은 돈과 무관해야 하고, 결혼이 신성한다면 돈은 거기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돈을 바라는 결혼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독이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이다. 수많은 청첩장을 뿌리고, 일급호텔 예식장에서 인기 악단을 동원하여 하객들에게 돈 자랑을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허영심이 상연하는 코미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지만, 오히려 질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한다. 사람을 질투하게 하고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결혼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런 광대놀이를 하지 말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결혼문화를 고쳐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 존경받는 이만열, 김일수, 고 김인수 장로 등은 자녀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친척, 친지 몇 분만 초청하여 조촐하고 엄숙하게 예식을 치렀다.

신혼가정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부모가 더 공급해 주는 것도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아껴서 반짝거리리는 새 숨가 락 하나, 새 집이 하나 사 들고 아주 모범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왕창 공급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즐거움이다. 그런 즐거움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신혼부부의 잔잔한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면 물질적으로 돕지 않는 것이 자녀의 책임감과 독립정신을 키우는 것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이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혼수가 적다고 하여 며느리를 구박하는 못난 부모들이 가끔 있다. 인도 같은 후진국에는 결혼지참금(dowry) 제도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남존여비를 고수하는 후진문화의 전형적인 악습이고, 우리의 혼수제도는 그런 잘못된 악습의 잔재다. 모든 사립의 평등한 인권을 존중하고 여권신장에 앞장선 한국 기독교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전통이다. 혼수에 집착하는 것은 며느리의 권한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서 구박받을 버거움을 만드는 어리석은이기도 하다.

엄숙하고 조촐하며, 모두가 축하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독교적 결혼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양 스테이트유대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노동권 운동본부 대표로' 정기고 있다.